

# “18년만이야” 광주 ‘4단계 꺽춤’ 11위

### 육상·양궁 등 단체 선전...고등부 7년만에 최고 성적

### 종합12위 전남 ‘평년작’...실업팀 육성 필요성 대두



#### 전국체전 결산

강원도에서 열린 제 96회 전국체육대회가 1주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22일 막을 내렸다. 내년에는 충남에서 열린다. 지난 16일 개막한 전국체전의 종합 우승은 경기도가 차지했다. 올해로 14회 연속 종합우승이다.

광주·전남 선수단은 애초 예상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 의기양양하게 고향행 버스에 올랐다.

대회를 빛낸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우수선수상(MVP)은 육상 단거리 4관왕에 오른 김국영(광주시청)에게 돌아갔다.

◇광주, 종합 11위 ‘선전’=광주선수단의 경우 지난해(15위) 성적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올린 데 으쓱해하고 있다.

종합 순위 11위는 지난 1996년(77회 전국체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한 것으로, 목표(30개)를 훌쩍 넘긴 46개의 금메달을 확보한다. 예상 외로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 종목의 선전이 순위 상승에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선수단은 금메달 46개, 은메달 48개, 동메달 68개 등 162개의 메달을 확보해 총득점 3만469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만7023점보다 3446점이 상승했다. 고등부도 62개의 메달(금메달 15·은메달 20·동메달 27)을 따 지난 2008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광주의 경우 특히 육상 단거리 4관왕을 배출한다. 양궁의 경우 2관왕·3관

왕 선수 뿐 아니라 종목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 1위를 차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광주시청 육상 남매’ 김덕현(4연패)·배찬미(3연패)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고등부 소프트볼(명진고·우승), 검도(은메달) 등도 ‘전통적 강세’ 종목의 소임을 다하면서 전례 상수를 이끌었다.

◇전남, 희망을 썼다. 종합 12위=전남은 금메달 33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55개를 획득하는 등 종합 득점 2만9746점을 얻었다.

고등부는 지난해(1만4257점)보다 성적(1만3311점)이 떨어졌고 대학부·일반부도 지난해(13위·1만7313점)와 비슷한 성적(12위·1만6412점)을 기록했다. 고등부는 그나마 전체 143개의 메달 중 76개(53%)를 점유하는 등 선수단의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또 롤러 종목의 경우 20개 세부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이 선전, 단체전 2위에 오르며 종합 성적도 2위를 차지하는 등 선전했고 정구도 5개 종목 모두 8강에 오르며 남자 일반부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기여했다.

공도와 수영도 선전했다. 전남 선수단 안팎에서는 전남도청 직장 운동부 등 부진을 면치 못한 직장 운동부 경기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업팀 부재 등으로 우수한 인재가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 실업팀까지 연계한 체계적인 육성 대책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는 28일부터는 강릉실내종합체육관 등 38개 경기장에서 선수와 임원 7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장애인체전이 치러진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내년 충남 아산에서 만나요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교2동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지인 충청남도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 대회新 3번·4관왕...광주시청 김국영 MVP

‘한국 육상의 간판’으로 제 96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단거리 4관왕에 오른 김국영(25·광주시청)이 대회를 빛낸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김국영은 22일 기자회견 투표 결과, 28개 가운데 20표를 얻어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수영의 임다솔(계룡고)은 5표에 그쳤다.

광주시청 소속 선수가 전국체전 4관왕 MVP를 한꺼번에 차지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대회 남자 100·200m, 400·16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 ‘육상 단거리 4관왕’ 올랐다.

특히 3개 종목(100m 예선, 200m 결승, 1600m 결승)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한데다, 지난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에서 5년만에 100m 한국신기록을 쓰며 한국 육상의 희망을 쏘아 올렸다는 점이 투표에서 압도적 결과로 반영됐다

는 분석이 나온다. 김국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4관왕 달성에 이어 MVP까지 받게 돼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기분”이라며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동계 훈련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파워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 ‘염소의 환생’ 머피 “시카GO HOME”

### 메츠, 시카고 꺾고 15년만에 WS 진출 머피, 포스트시즌 6경기 연속 홈런 신기록

22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 시카고 컵스의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4차전에서 메츠 3번 타자 머피가 6-1로 앞선 8회초 2사 1루에서 2점 홈런을 쏘아 올린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욕 메츠의 2루수 대니얼 머피(30)가 포스트시즌 최다 연속 홈런 신기록을 경신하며 시카고 컵스를 올렸다.

머피는 22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4차전에서 3번 타자 2루수로 출전, 5타수 4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이 가운데 안타 1개는 6-1로 앞선 8회초 2사 1루에서 쏘아 올린 썬기 2점포였다. 컵스 투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의 시속 약 154km 직구를 견어올려 가운데 담장을 넘기며 머피는 6경기 연속 홈런을 달성했다. 이로써 머피는 포스트시즌 최다 연속 홈런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카를로스 벨트란(뉴욕 양키스)이 휴스턴 애스트로스 시절인 2004년 세운 포스트시즌 5경기 연속 홈런을 넘어선 것이다.

이 썬기포로 8-3으로 승리한 메츠는 NLCS에서 컵스를 4전 전승으로 압도하고 창단 5번째로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머피는 포스트시즌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클레이턴 커쇼(2개)와 잭 크레인키, 컵스의 존 레스터, 제이크 아리에타, 카일 헨드릭스, 로드리게 등 6명의 투수에게서 총 7개의 홈런을 터뜨렸다. 포스트시즌 7홈런은 2루수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정규시즌에서 홈런이 14개에 불과했던 머피가 포스트시즌에서 이같은 불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염소의 저주’와 연관지어 말하기도 한다.

컵스는 1945년 염소와 함께 들어오려던 관객의 입장을 거부한 이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하는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다.

컵스는 1908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이후 107년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입장을 거부당한 염소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머피’로 알려져 있다. 염소와 같

### 2015 미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일정



은 이름을 가진 머피의 컵스와 NLCS 활약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다.

한편 컵스는 2003년 이후 12년 만에 NLCS에 진출했지만 ‘염소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 2’의 예언도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1989년 개봉한 영화 ‘백 투 더 퓨처 2’는 타임머신을 이용해 2015년으로 미래 여행을 떠나는 내용을 담으면서 컵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것으로 묘사했는데, 결국 상상에 의한 설정에 불과했다.

메츠의 월드시리즈 상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에서 격돌 중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중 승자가 메츠와 월드시리즈에서 맞붙는다. 캔자스시티가 토론토에 3승 2패로 앞선 가운데 양팀은 오는 24일 ALCS 6차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 KIA 투수 심동섭·홍건희 프리미어 12 상비군 포함 26일부터 대표팀 훈련

KIA 타이거즈의 좌완 심동섭과 우완 홍건희가 프리미어 12 국가대표팀 상비군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2일 각 구단 유망주 위주로 구성된 2015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 국가대표팀 상비군 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상비군은 KIA 심동섭과 홍건희를 포함해 김택형(넥센), 박종훈(SK) 등 투수 4명, 포수 1명(경향 김사훈), 내야수 5명(LG 문선재·한화 하주석·LG 양석환·넥센 김하성·롯데 오승택), 외야수 2명(넥센 고종욱·경찰 김도현)으로 구성됐다.

국제대회를 앞두고 상비군을 운영한 것은 지난 2007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이후 8년 만이다.

대표팀 소집기간이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과 겹치고, 도박 스캔들의 여파로 일부 선수의 대회 불참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대표팀 훈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상비군이 구성됐다.

상비군은 대표팀이 소집되는 오는 26일부터 11월5일까지 대표팀과 함께 훈련을 할 예정이다.

대표팀과 자체 청백전 등 실전 훈련을 갖은 뒤 결원이 생길 경우 그 공백을 채우게 된다.

한편 프리미어 12 대회에 참가하는 야구대표팀은 다음달 4·5일 이틀간 쿠바 대표팀과 고척 스카이돔에서 서울 슈퍼시리즈를 치르고, 6일 일본 삿포로로 출국할 계획이다.

/김여율기자 wool@